**보도자료 2015년 4월 1일**

**챔픽스(바레니클린), 흡연량 감소를 통한 단계적 금연에도 효과적**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게재 연구 결과, 흡연량을 줄여가며 24주간 바레니클린을 투여한 경우 위약 대비 높은 흡연 감소 및 금연 효과 확인**

[2015년 4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 [www.pfizer.co.kr](http://www.pfizer.co.kr))은 금연치료 보조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투여를 통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고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1]](#endnote-1)가 미국의학협회저널(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소재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의 존 오 에버트(Jon O. Ebbert) 박사와 연구팀에서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대조, 10개국 61개 다기관 임상으로 진행했다. 한 달 이내로 금연할 의지가 없거나 금연할 수 없지만 3개월 후 금연할 목표를 가지고 서서히 흡연량을 줄이기로 결심한 흡연자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 참여한 흡연자들은 4주까지 흡연량을 50% 이상, 8주까지 베이스 라인 대비 75%까지 줄이고, 12주에는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을 목표로 24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52주까지 추적관찰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이번 연구의 1차 유효성 평가 변수(primary endpoint)인 치료기간 마지막 10주간(치료 시작 후 15~24주)의 금연지속률은 챔픽스를 투여 받은 경우 32.1%로 위약군 6.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2차 유효성 평가변수의 경우, 치료기간 마지막 4주(치료시작 후 21~24주) 금연지속률이 챔픽스 투여군에서 37.8%로 위약군 12.5%에 비해 높았으며, 21~52주동안 금연지속률 또한 챔픽스군 27%로 위약군 9.9%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 | --- |
|  | 금연지속, 참가자 수(%) | |
|  | 바레니클린 투여군(n=760) | 위약군(n=750) |
|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15-24주 | 244(32.1) | 52(6.9) |
|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21-24주  21-52주 | 287(37.8)  205(27.0) | 94(12.5)  74(9.9) |

[표]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으로 확인된 연구 기간별 금연지속률1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원식 부사장은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 중에는 날짜를 정해 단번에 금연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나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연 결심이 확고하지 않더라도 금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서히 금연하고 싶어하는 흡연자들에게 챔픽스가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챔픽스(바레니클린)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여러 건의 임상연구 결과 12주 기준 금연 성공률이 40~50%대%[[2]](#endnote-2),[[3]](#endnote-3),[[4]](#endnote-4),[[5]](#endnote-5)로 니코틴 대체제 및 부프로피온 등 다른 금연치료 옵션 대비 높은 금연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인 및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12주 금연성공률이 약 60%[[6]](#endnote-6)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52주 장기 금연 지속률 데이터도2,4도 확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혈관계질환[[7]](#endnote-7), COPD[[8]](#endnote-8) 뿐 아니라 신경정신과 동반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흡연자들[[9]](#endnote-9),[[10]](#endnote-10),[[11]](#endnote-11)에 대한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챔픽스의 금연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강화해왔다.

# # #

**한국화이자제약**

한국화이자제약은 글로벌제약업계를 선도하는 화이자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진화된 R&D를 바탕으로 심혈관, 암, 금연, 비뇨생식기, 정신∙ 신경계질환, 안질환 등과 관련된 혁신적인 치료제 및 백신과 생물학적 제제 분야에서의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고의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 업계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증진과 국내의약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임상시험유치∙ R&D 전문가양성∙ 기술력 및 정보공유∙ 전략적 제휴 노력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국내 R&D 발전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더불어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www.pfizer.co.kr](http://www.pfizer.co.kr/)

1. Jon O. et al. Effect of Varenicline on Smoking Cessation Through Smoking Reduction (JAMA Feb 17. 2015;313(7):687-694.) [↑](#endnote-ref-1)
2. Gonzales D, et al. Varenicline, α4β2 Nicotonic Acetylcholine receptor partial agonist, vs. sustained-release Bupropion and placebo for smoking cess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July 5, 2006, Vol 296, No 1) [↑](#endnote-ref-2)
3. Aubin H-J et al. Varenicline versus transdermal nicotine patch for smoking cessation; results from a randomized open-label trial (Thorax, 2008;63:717-724) [↑](#endnote-ref-3)
4. Douglas E, et al. Efficacy of Varenicline, an α4β2 Nicotonic Acetylcholine receptor partial agonist, vs. placebo or sustained-release Bupropion for smoking cessation (JAMA July 5, 2006, Vol 296, No. 1) [↑](#endnote-ref-4)
5. Nides M, et al. Varenicline versus bupropion SR or placebo for smoking cessation: a pooled analysis (Am J Health Behav 2008 Nov-Dec;32(6):664-75) [↑](#endnote-ref-5)
6. Tsai S, et al.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of Varenicline, a selective α4β2 Nicotonic Acetylcholine receptor partial agonist, as a new therapy for smoking cessation in Asian smokers (Clinical Therapeutics 2007 Vol. 29, #6) [↑](#endnote-ref-6)
7. Rigotti N,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Varenicline for smoking cessation in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a randomized trial (Circulation. 2010 Jan 19;121(2):221-9) [↑](#endnote-ref-7)
8. Tashkin A, et al. Effects of Varenicline on smoking cessation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COPD: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hest 2011 Mar; 139(3):591-9) [↑](#endnote-ref-8)
9. Gibbons R, et al. Varenicline, smoking cessation, and neuropsychiatric adverse events (AM J Psychiatry 2013;170:1460-1467) [↑](#endnote-ref-9)
10. Pasternak B, et al. Use of Varenicline versus Bupropion and risk of psychiatric adverse events (Addiction 108. 1336-1343) [↑](#endnote-ref-10)
11. Robert M. et al. Effect of Varenicline on Smoking Cessation in Adults with Stably Treated Current or Past Major Depression (Ann Intern Med. 2013; 159:390-400) [↑](#endnote-ref-11)